

박빙승부 승리 “새로운 신안 만들 것”

김태성 신안군수

조국혁신당 김태성 신안군수 당선자는 '징검다리 5선'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박우량 후보를 1천170표 차로 꺾으며 대이변을 연출했다.

개표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승부가 연출된 신안군수 선거에서 김 후보는 51.95% (1만5천546표)의 득표율로 48.04% (1만4천376표)를 얻는 데 그친 박 후보에 신승했다.

신안 입자도 출신인 김 당선자는 입자중학교와 살레시오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육군사관학교 4기로 입관했다. 군과 청와대, 정치권을 두루 경험한 김 당선자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통령 경호실 종합상황실 상황반장을 역임했으며 육군 제11기계화보병사단 사단장을 지내는 등 안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평화안보위원회 국방정책위원회 간사와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건국대학교 안보안전연구소 안보전략연구센터 자문위원,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김 당선자는 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했으나 제명과 탈당을 거쳐 조국혁신당 후보로 출마했다. 김 당선자는 지역 숙원사업 추진과 신성장동력 확보, 군민 통합을 중심으로 신안군정 운영에 나설 전망이다.

김 당선자의 공약은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 ▲국립



조국혁신당 김태성 신안군수 당선자가 지난 3일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정된 직후 지지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김태성 당선자 측 제공>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스마트 친환경 농축산 산업단지 조성 ▲관광휴양산업 육성 ▲다이아몬드 제도 연도교 조기 착공 ▲그린수소 에너지사업 조성 등이다.

김 당선자는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며 선거 과정의 갈등을 모두 털어내고 새로운 신안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변은진·신안=양훈 기자

민주 컷오프 후 무소속 당선 ‘대이변’

박성현 광양시장

광양시장 선거에서 민심은 또다시 변화를 택했다. 초점전의 대결 끝에 무소속 박성현 후보가 현직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인화 후보를 제치고 광양시장에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개표 결과, 박성현 당선자는 전체 유효표 8만1천200표 가운데 50.23%인 4만154표를 획득했다. 3만7천74표 (46.37%)를 받은 정인화 후보를 3천80표 (3.86%p) 차로 따돌렸다.

광양은 민선 5기부터 9기까지 5차례 연속 무소속 시장 배출이라는 진기록을 썼다.

박 당선자는 1965년 광양시 진월면 출생으로 진월초, 진월중을 거쳐 순천고를 졸업했다.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의 명문 국립대인 큐슈대학교 대학원에서 선박시스템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해양 인재를 양성했으며 탁월한 리더십과 행정 능력을 인정받아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제7대 총장을 지냈다. 또 여수광양항만공사 제5대 사장,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지낸 해양·항만 전문가로 꼽힌다.

당초 박 당선자는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었으나 불법 전화방 의혹으로 민주당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박 당선자의 핵심 공약은 항로 시대 광양항 동북아 거점항 육성, 광양제철소 리뉴얼 기반 철강 산업 재부흥, 서울대병원 산업의학·재활통합 국가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광양 정



무소속 박성현 광양시장 당선자가 지난 3일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정된 직후 지지자들과 함께 만세를 외치고 있다. <박성현 당선자 측 제공>

년 기본소득제 도입, 민생회복 지원금 30만원 지급 등이다.

박성현 당선자는 “시민 후보의 승리는 바로 광양시민 모두의 승리”라며 “말이나 정치가 아닌, 오직 눈부신 시정 결과로 보답하겠다. 살고 싶은 광양, 위대한 광양의 시대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고 오직 시민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양시원·광양=곽동현 기자

재선 도의원 출신...現군수에 ‘압승’

박종원 담양군수

6·3 지방선거 전남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담양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종원 후보가 조국혁신당 1호 기초단체장으로 재선에 나선 정철원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개표 마지막까지 박빙을 이룰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박 당선자는 전체 유효표 3만5천 가운데 과반이 넘는 1만6천79표 (55.05%)를 획득하며 1만1천535표 (39.49%)에 그친 정 후보와의 격차를 4천544표까지 벌리며 압승에 가까운 성적표를 거뒀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혁신당에 군수직을 내준 지 14개월 만에 탈환에 성공했다.

1968년생인 박 당선자는 담양동초등학교, 담양중학교, 광주 금호고등학교, 광주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전남대 정책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 당선자는 5·7대 담양군의원, 11·12대 전남도의원 등 기초·광역의원을 모두 경험하며 축적한 인적 네트워크와 행정 역량이 강점으로 꼽힌다.

박 당선자의 대표 공약은 ▲담양형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예산 1조원 확보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건립 ▲군사시설 이전 ▲농업 스마트팜 전환 ▲원도심 활성화 등이다.

박종원 당선자는 “오늘의 승리는 저 박종원의 개인적 승리가 아닌, 담양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선택해주신 위대한 담양군민 모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종원 담양군수 당선자가 지난 3일 당선 확정 이후 꽃목걸이를 목에 걸고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박종원 당선자 측 제공>

이어 박 당선자는 “국회와 중앙정부를 뛰어다니는 ‘담양군 영업사원 1호’가 돼 담양의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고 예산 1조원 시대를 조기에 열어 청년들이 돌아오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활력 넘치는 담양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양시원·담양=정승근 기자

3전4기 승리 “군민 삶 바꾸는 군정 실현”

김신 완도군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도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김신 후보가 3전4기 도전 끝에 당선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개표 결과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총 51.29% (1만5천675표)를 획득해 더불어민주당 우홍성 후보 (1만4천885표·48.7%)를 2.59%p (790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김 당선자는 개표 마지막까지 얼척락 뒤치락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박빙의 승부를 펼치며 4번째 군수 도전 끝에 군민의 선택을 받았다.

김 당선자는 완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 정치인으로 젊은 시절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직접 목격하며 정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슴에 새겼고, 노동 현장에서 땀 흘리며 정직과 헌신의 삶을 배웠다.

이후 고향 완도로 돌아와 청년운동과 시민사회운동에 앞장섰으며 전남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39세의 젊은 나이로 완도군의회에 입성한 뒤 재선을 거친 김 당선자는 이후 3차례 완도군수 선거에 도전했으나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김 당선자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완도 전역 섬마을을 직접 찾아다니며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전북과 해조류 산업 위기, 청년 유출, 의료 소외, 섬 지역 교통 등 지역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확인하고 ‘군민의 삶을 바꾸는 군정’을 약



무소속 김신 완도군수 당선자가 지난 3일 당선 확정된 직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번쩍 들어 인사하고 있다. <김신 당선자 측 제공>

속했다.

김신 당선자는 “이번 선거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완도의 변화를 바라는 군민 모두의 승리”라며 “선거 과정에서 보여주신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